범어사 신중도 60여 년만에 '제자리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외로 유출됐던 조선 후기 불화가 60여 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범어사 신중도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다.

환수고불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삼혜 스님,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신중도의 환수를 환영했다. 스님은 "종단은 사찰을 떠난 우리의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해 왔고 이러한 조그마한 결실이 오늘의 고불식으로 이어지게 됐다"면서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성보문화재들이 오늘을 계기로 하루 속히 원래의 자리에서 예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부대중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신중도는 조계종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긴밀한 협조와 원 소장처인 범어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난 9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해외경매시장에 출품된 한국문화재 모니터링 중 신중도 1점을 발견하고, 이를 조계종에 알렸다. 조계종은 곧장 전체적 화풍과 화기 일부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신중도가 1891년 화승 민규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현재 범어사 칠성도와 화기의 구성이나 내용이 유사함을 확인했다. 또한 범어사 극락암에 봉안됐던 작품인 것도 확정했다. 국외 유출 시기와 이유는 특정할 수 없으나 한국사회 혼란기였던 1950~60년대로 추정된다는 게 조계종의 분석이다.



미국서 60여 년만에 환수된 범어사 신중도. 19세기 유행한 도상을 지닌 중요한 불화이다.



조계종은 11월 5일 총무원 1층 로비에서 범어사 신중도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내빈들이 신중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조계종, 11월 5일 환수 고불식
모니터링 중 美경매 출품 확인
종단 · 사찰 · 정부 연계해 되찾아

19세기 유행한 도상 지닌 불화
畵師 민규 추청… 화맥 파악도

조계종 문화부와 범어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환수 추진단을 구성해 응찰을 통한 환수를 결정했고, 지난 10월 6일 미국 LA서 진행된 경매에서 신중도를 낙찰 받았다. 신중도는 지난 10월 30일 한국으로 이운됐으며 서울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간단한 보존처리를 마쳤다. 환수고불식 이후에는 본래 자리인 범어사에 이운 · 봉안된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환수된 신중도는 1891년에 조성돼 칠성도와 마찬가지로 범어사 극락암에 봉안되었던 불화로 추정된다"면서 "범어사는 극락암 신중도 환수를 계기로 현재 도난 · 유출돼 있는 범어사와 교구말사의 성보들을 온전하게 제 위치로 모셔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환수된 범어사의 신중도는 19세기를 대표하는 화승인 민규 스님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범어사 신중도는 예적금강, 마리지천, 위태천 등 중요한 불교 호법신을 중심에 두고 양쪽에 천상의 신과 불법을 지키는 팔부중 신상 등을 채워 넣었다. 이는 19세기 중후반 유행한 도상으로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도 유사한 104위 신중도(1862년작)가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는 "'범어사 신중도'는 19세기 후반에 조성되기 시작한 104위 신중도 형식을 계승한 19세기 후반 불화로 현전하는 사례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20세기에 조성된 104위 신중도의 전통을 보여주는 중요한 불화"라며 "주존의 도상부터 위태천 주변의 산신 조왕신 등 표현되어 있는 등 19세기 후반 신중도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전체 구성도 안정감 있고 존상 표현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신중도의 귀환으로 19세기 화승 민규의 화맥이 범어사를 중심으로 계승됐음이 향후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향후 성보문화재 환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서원하며 환수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성철 스님 수행 발자취, 직접 느껴보자

산청군 '성철 스님 순례길' 조성
겁외사부터 엄혜산 · 원지마을까지
약 3㎞ 구간, 1시간 정도 소요돼
향후 단성면 산책로 연결 계획도



산청군이 새롭게 조성한 성철 스님 순례길. 길을 걸으며 양천강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제공=산청군

20대 청년시절의 성철 스님이 용맹정진을 다짐하며 지리산 대원사를 향해 걸어간 구도의 길이 '순례길'로 거듭났다.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은 "단성면 소재 겁외사를 시작으로 신안면 원지마을을 거쳐 단성교로 이어지는 '성철 스님 순례길(양천 엄혜산 생태길)'을 조성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 길은 성철 스님이 20대에 수행을 위해 걸어간 길로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생태숲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순례길에서는 성철 스님 생가인 율은고거가 있는 겁외사를 비롯해 묵곡생태숲을 찾는 방문객들이 양천강의 빼어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지리산으로 향하는 관문인 신안 · 단성면을 걸어서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한 걷기길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순례길은 묵곡 대나무 생태숲길과 나무데크로 조성된 양천(엄혜산) 생태길, 원지마을로 이어지는 대나무 생태숲길로 구성됐다. 엄혜산자락을 오른편에 두고 왼편으로는 조용히 흐르는 양천강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어 산림욕에도 좋다는 게 산청군 설명이다.

순례길은 겁외사에서 원지마을 강변둔치 공터까지 약 3㎞에 달한다. 엄혜산 구간의 일부 계단을 제외하면 평지여서 왕복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산청군은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원지마을에서 죽전마을 인근까지 조성된 뚝방길과 데크길을 더 걸을 수 있다. 이 경우 2시간의 여유가 필요하다"며 "순례길을 모두 걸은 뒤 겁외사로 돌아오면 묵곡생태숲도 거닐어보길 추천한다. 2007년부터 4년에 걸쳐 조성된 생태숲은 14만2000㎡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산청군은 이어 "앞으로 성철 스님 순례길을 엄혜산 건너편 단성면에 조성된 산책로와 연결해 총 길이 7.8㎞의 순환 걷기길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 길은 묵곡생태숲과 겁외사, 엄혜산, 문익점목면시배유지 등을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명품 걷기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년 콘텐츠 장려, 지원 필요"

숨도, 10월 31일 교불련과 불교미래포럼

청년문화공간 숨도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와 10월 31일 숨도 회관에서 '제6회 불교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송운석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 시대에 '한국 청년들에게 불교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종수 중앙대 교수는 5G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한국형 수행의 체계화 그리고 청년 친화적 명상 프로그램으로 융합 명상법을 소개했다.

이어 이영숙 동국대 교수는 불교영상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 교수는 불교 가르침을 녹여 낸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호모 포노사피엔스'에 맞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29초 영화제', '불교 영상사진전' 등 위에서부터가 아닌 아래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며 "자연스럽고 쉬운 불교의 모습이 필요하다. 불교의 가르침을 녹여낼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청년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덕현 기자

소외계층 위한 아이연탄맨 뛴다

한국의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평가받는 '아이연탄맨 캠페인'이 11월 8일 서울 인사동 북광장에서 릴레이 연탄 기부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인사동 거리에서 불자와 시민들에게 두루마리 휴지로 만든 연탄을 나눠주며 캠페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 따라 ARS나 후원계좌를 통해 5천원을 기부하면 연탄 6장이 적립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이와 함께 아이언맨과 같이 손바닥에 연탄 그림을 그린 뒤 SNS에 올려 주변인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문화체육관광부 2013-82호. 고유번호 101-82-23205.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세계불교 법왕청.com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문화체육관광부 2009-19호
고유번호 101-82-18115

국제 승려 구족계 금강계단 제5회 비구 수계 대법회

테라와다 상좌부 사사나 양곤 승가대학에서 단기 출가의식 직접체험

2020년 2월 16일 ~ 2월 22일

세계불교정상들의 모임
개최 예정으로 각국불교대표 및 승왕
(금강계단과 회의 일정 조율 때 친견계획중)
세계불교도들의 우꾸마라 법왕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종정)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사아, 중국,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몽골, 인도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과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450여 종단의 모든 스님들에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10년, 20년, 30년, 40년의 법납의 스님들을 행자, 사미승의 마음으로 초발심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갖고자 큰 마음 큰 뜻으로 미얀마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도움을 받아 三師 七證 대원로 큰스님들을 모시고 승가대 많은 스님들의 독경 속에 장엄하고 여법한 국제 금강계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립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교와 연방승가회 정식 비구 계첩을 받게 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은행 023501-04-214874 세계불교 법왕청
■신청기간 : 선착순 50명 *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사진1매, 여권사본
■서류제출 :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호)
■문의전화 : 02-733-5665 / 010-3618-6061

